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曾 天 富 *

摘 要

韓國漢文小說「王慶龍傳」,乃一未題撰寫人的手抄寫本,現仍留存於世的有金東旭先生藏本與三芳錄本。有關此作品,筆者前已爲文考證出係改寫自明代擬話本小說〈警世通言〉卷24的「玉堂春落難逢夫」,成書年代約爲1624年至1656年間。另外韓國開化期,陸續出現了「龍含玉」、「碧芙蓉」、「青樓之烈女」等韓文小說作品,經考證仍係「王慶龍傳」之系列改寫作品,玉堂春故事在韓受歡迎之程度可見一斑。

本文就現存於世的兩本「王慶龍傳」及三篇開化期作品,逐一比對研究,探討其傳承淵源與相互影響關係。經研究發現,「王慶龍傳」兩種版本,敘述字句固有相當出入,但在情節結構的鋪陳安排方面,則不見有何不同,僅憑內容之異同,要判定比二本之先後,頗有困難,但可以肯定的是,此二本必是根據某一原本,傳抄而成。「龍含玉」經考證結果,是根據三芳錄本「王慶龍傳」填上韓語虛詞和語尾的改寫作品,小說結尾部分,插入朝鮮末期通俗小說慣見的英雄人物素材,但仍不改其愛情小說的本質。「碧芙蓉」則又是根據「龍含玉」改寫而成,作品中的人物、背景、時間全作更動,但結尾女主人公玉檀的立功情節,遭到刪除,作品本身流露出改寫者試圖引入新小說創作技巧的努力。「青樓之烈女」則是翻譯自「王慶龍傳」的韓文小說,譯者非常忠實的逐字翻譯了這部作品,所根據的版本應是三芳錄本。

I. 緒 言

「王慶龍傳」은 朝鮮時代 漢文小說로 기생과 사대부 子弟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 愛情小說이다. 필자는 이미 그 內容을 고찰하고 中國의 擬話本小說集〈警世通言〉卷

* 作者爲本校東語系專任講師

24「玉堂春落難逢夫」의 翻案작임을 밝힌 바 있다.¹⁾ 「王慶龍傳」은 後代에 「龍舍玉」, 「碧芙蓉」, 「靑樓之烈女」란 이름의 한글소설로 改作 또는 翻譯되었는데 韓國內에서 상당히 流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三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來源에 대한 검토는 그리 많지 않았다.²⁾

본문에서는 各本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相互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各本의 原典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王慶龍傳」이 「玉堂春落難逢夫」의 내용을 보고 번안한 작품임을 재확인하고 「王慶龍傳」과 그 異本, 그리고 後期에 나온 세 本에 대한 書誌的 정리와 相異點을 比較文學 研究의 方法을 援用하여 탐구하기로 한다.

II. 「王慶龍傳」의 原典과 그 異本

1. 「王慶龍傳」의 原典

「王慶龍傳」은 作者, 창작년대 未詳의 筆寫本 漢文소설로 현재 金東旭本과 三芳錄本이 알려져 있다. 그 창작년대에 대해서, 沈慶昊는 소설 末尾에 나오는 여주인공 玉檀의 子孫에 대한 記載에 근거하여 三芳錄本은 宣.仁.光海間에, 金東旭本은 그보다 앞선 宣.仁間에 筆寫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³⁾ 필자는 鄭炳昱의 「崔文獻傳에 대하여」一文과 <警世通言>의 간행년대(1624년), 그리고 三言의 韓國

1) 曾天富, 韓國小說의明代擬話本小說受容의一考察(釜山大碩士論文, 1988. 2) pp. 29-44

2) 「龍舍玉」에 대해서, 宋敏鎬의 “韓國開化期小說의史的研究”(서울: 一志社 1975 pp. 86-92)와 韓元永의 “韓國開化期新聞連載小說研究”(서울: 一志社 1990 pp. 274-276)에서 그 내용을 살피고 前代小說과의 比較研究를 한 바 있으나 그 來源에 대한 언급은 없고, 孫秉國의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話本小說의 影響”(東國大博士論文 1990, pp. 126-133)에서는 「玉堂春落難逢夫」의 번안작이라 쓰고 있다.

3) 沈慶昊, “朝鮮後期小說考證(1)”(韓國學報제56집, 1989가을, 一志社) p. 93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流入 가능성을 근거로 그 시대를 1624년에서 1656년 사이로 추정한다. 4)

먼저 「王慶龍傳」의 梗概를 보면 아래와 같다.

中國 浙江 땅 紹興 王閣老의 아들 慶龍은 父命으로 銀子 數萬兩을 받아 오다가 徐州에서 어느 瓢子파는 노파의 소개로 기생 玉檀과 만난다. 5, 6년이 지나 무일푼이 되자 娼母는 慶龍을 蘆林으로 誘引, 玉檀을 빼들었다. 도적에게 잡힌 慶龍은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으나 걸식하는 신세가 되고 우연히 소개해 준 노파를 만나 옥단에게 소식을 전한다. 옥단은 경룡과 헤어진 뒤 슬픔에 잠겨 있다가 노파에게서 경룡의 소식을 알고 편지를 내어 關王廟 卓下에서 만나, 銀子를 주어 거짓으로 財物인 체 돈을 駿馬에 싣고 娼母집을 찾아오게 한 다음 娼母가 잠든 사이 前日 탕진한 재물을 몽땅 찾게 해 주고 도주시킨다.

다음날 아침 옥단은 경룡을 쫓아간다는 핑계로 娼母와 같이 나가, 창모가 경룡을 죽이려 했다고 관가에 고발하려 해 창모로부터 接客치 않아도 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또 다시 창모의 계교에 넘어가 趙賈란 巨商에게 납치를 당한다. 趙賈의 처는 이웃집 巫夫와 私通하는 장면을 옥단에게 들키자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巫夫와 자고 독이 든 죽을 옥단에게 주나 오히려 남편만 죽게 되자 옥단에게 누명을 씌운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경룡은 부모에게 謝罪하고 學問에 열중, 壯元及第하고 徐州 殺夫事件의 해결을 맡아 지혜로써 趙妻, 巫夫의 흉계를 알아내어 그들을 斬하고 옥단과 동리 사람들을 석방한다. 그런 뒤 慶龍은 玉檀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부친의 命으로 맞아들인 正室과 더불어 오래도록 福을 누린다.

「王慶龍傳」의 原典으로 이미 밝혀진 <警世通言>卷24 「玉堂春落難逢夫」는 明代 擬話本소설로 작자는 馮夢龍이다. 이 작품의 남주인공 王景隆은 『明史』에 기재된 萬曆進士 王三善으로 萬曆34年(1606)에 간행된 「海剛峰居官公案傳」의 卷1 第29話 「妬奸成獄」은 아마 이 작품의 原典일 것이며 馮夢龍의 筆記小品 <情史>卷2 「玉堂春」條에도 그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玉堂春에 관한 소설로는 <警世通言>所在 「玉堂春落難逢夫」가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데 그 題目아래 注에서

4)註1)과 同一, p. 31

“與舊刻王公子奮志記不同”이라 밝힌 것으로 보아, 이보다 더 일찍이 「王公子奮志記」란 소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玉堂春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상당히 유행하여, 清代에 이 故事로부터 改編된 戲曲이 많이 나왔는데 雍正年間の 유명한 傳奇 「破鏡圓」이 바로 그것이며 그외에도 彈詞, 大鼓, 北京戲등에서도 玉堂春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玉堂春落難逢夫」는 入話없이 바로 本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梗概는 이렇다.

明代 南京 땅 金陵城 禮部尙書 王瓊의 아들 王景隆은 부친의 命으로 빌려준 銀子 三萬兩을 받아 北京에 머물다가 瓜子파는 金哥란 사람의 소개로 기생 玉堂春과 만난다. 一年餘가 지나 巨金을 탕진하자 抱主夫婦는 계교를 내어 갈대숲에서 景隆을 따돌린다. 盜賊에게 죽을 뻔한 景隆은 걸인의 신세가 되어 떠돌다가 우연히 金哥를 만나 자기의 소식을 玉堂春에게 알린다. 한편 玉堂春은 抱主부부의 계교에 속아 景隆과 헤어졌지만 一片丹心 景隆만을 생각다가 金哥에게서 소식을 듣고 關王廟에서 만나 銀子를 주고 富者인 체 다시 찾아오게 한다. 景隆은 다시 抱主의 환영을 받고 玉堂春과 지낼 수 있게 되었으나 玉堂春은 자신의 패물과 온갖 재물을 주면서 景隆을 고향으로 보낸다.

이튿날 아침 玉堂春은 이웃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후로는 接客치 않겠다는 약조를 抱主에게서 받아내나 다시 계교에 넘어가 山西의 巨商 沈洪에게 팔려가게 된다. 沈洪의 本妻 皮氏는 이웃의 趙昂이란 者와 私通하다가 玉堂春에게 발각되자 그와 짜고 玉堂春을 毒殺하려다가 남편만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皮氏는 누명을 玉堂春에게 뒤집어 씌웠고 趙昂은 관리를 매수해 玉堂春을 살인자로 下獄시켰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景隆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부친의 용서를 받고 학문에 몰두, 드디어 壯元及第하여 山西巡按으로 가게 되고 玉堂春을 구한 후 집으로 데리고 가, 그전에 부친이 맞아들인 劉氏 집안의 閨秀와 함께 오래도록 의종계 살았다.

이와 같이 「王慶龍傳」의 기본 내용은 완전히 「玉堂春落難逢夫」와 일치하고, 남녀 주인공의 이름도 유사하며 그 역할도 일치하고 있다. 소설의 內容展開에서 人物과 그 人物이 맡은 역할이 이야기를 끌여가는 주요 매체라고 볼 때 「王慶龍傳」에서 보여주는 이 같은 一致는, 이 작품이 「玉堂春落難逢夫」의 翻案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외 사소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사건전개에 큰 영향을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王慶龍傳」이 「玉堂春落難逢夫」의 翻案作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고찰을 생략하기로 한다.⁵⁾

2. 「王慶龍傳」의 異本檢討

현존하는 「王慶龍傳」은 앞서 말한 대로 金東旭本과 三芳錄本이 있는데 모두 시대, 작자 未詳의 筆寫本 漢文小說이다. 金東旭本은 1冊(初卷)36面이며, 표지에 “王慶龍傳卷之初”라 씌여있고, 첫장에 “王慶龍傳卷之單” 그리고 “庚寅三月〇〇”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王慶龍傳이 끝나는 데서부터 마지막 5面に 걸쳐 燭影賦가 실려 있는데 내용은 宋代의 燭影傳說을 古書에서 보고 그 感懷를 읊은 것이며 「王慶龍傳」과의 相關關係는 보이지 않는다.

三芳錄本은 한권으로 된 책인데, 표지에 三芳要路記라 씌여있고 玉檀傳, 雲英傳, 英英傳 세편의 소설과 要路院記를 싣고 있다. 「王慶龍傳」의 시작 첫면에 “一作玉檀傳”이라 되어 있고 총 26면이며, 그 筆體가 시작 때와 중반부 이후가 달라, 한 사람이 筆寫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두 本을 비교해 보면,

첫째, 「王慶龍傳」에는 모두 10首의 詩와 6闕의 詞가 插入되어 있는데, 그중 慶龍이 걸인의 신세가 되었다가 玉檀의 도움으로 다시 찾아와 재물을 되찾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별가로 부르는 滿庭芳詞 2闕이 金東旭本에는 빠져있다.

둘째, 金東旭本에는 남녀 주인공의 이름이 慶龍과 玉檀으로 나오는 데 비해 三芳錄本에는 龍, 檀으로 나오는 귀절이 현저히 많다.

玉檀聽其歌畢...(金本)	賊輩執慶龍...(金本)
檀聽其歌畢...(三本)	賊輩執龍...(三本)

慶龍驚駭, 罔知所措...(金本)
龍驚駭, 罔知所措...(三本)

5)註1)의 논문 참고.

셋째, 글자의 배열이 바뀌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故魏公將行, 留慶龍語曰...(金本)

故將行, 魏公留慶龍語曰...(三本)

留京歸月餘, 商人乃還, 盡歸其息銀...(金本)

留京歸月餘, 商人乃歸, 盡還其息銀...(三本)

넷째,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쓰거나 故意로 빼버린 경우도 많다.

終日讀書者累年...(金本)

終夜讀書者累年...(三本)

吾來時緣, 行色忽劇, 藏財房子, 忘未得鎖...(金本)

吾來時, 行色忽劇, 藏財房子, 未得下鎖...(三本)

責其徵還, 汝其留待取來...(金本)

責其徵還, 汝其取來...(三本)

다섯째, 玉檀의 侍婢 이름이 全篇에 네번 나오는데 金東旭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蘭英으로 나오나, 三芳錄本에서는 세번째 것이 蘭英으로 된 것 외에 모두 蘭香으로 不一致를 보이고 있다. 또, 慶龍이 玉檀을 만날 때 소개해 주는 노파가 金東旭本에는 "... 偶見樓下, 有賣瓢子老嫗..."로 되어 있는데, 三芳錄本에는 "... 適見樓下, 有買瓢子老嫗..."로 나오나 다시 뒷부분에서 "賣瓢子老嫗"로 고쳐져 있다. 그리고 慶龍이 옥단을 보고 난 뒤 娼母에게 주는 銀子액수가 三芳錄本에는 三千兩인데 金東旭本에는 三百兩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文句의 添削이 두 本에 共히 나타나는데

王公子乘夕而返, 必投虎口矣, 吾雖不殺王郎, 王郎由我而死矣. 天荒地老, 此恨無窮, 生不相從, 死不同穴, 悠悠蒼天, 此何人哉. 舉聲長慟, 肝膽欲裂. 僕從聞其語, 哀甚, 亦爲垂泣...(金本)

王公子乘夕而還, 必投虎口矣, 吾不殺王郎, 王郎由我而死矣. 僕從聞其語, 哀甚, 亦爲之垂淚...(三本)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轉入揚州，乞食於市，苟延時月，適值歲夕，有僱役於公府，慶龍傭力於人，爲盲優之奴，方戲於庭際，堂上有一官者...(金本)

轉入揚州，行乞市，苟爲優盲之奴，方戲於庭際，堂上有一官者...(三本)

公子若復難而黜之，彼家父母必奪其志...(金本)

公子若復難而黜之，朝中必有人言，於妾亦將不利，義所不可，且彼家父母若奪其志...(三本)

이 두 本간의 先後問題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玉堂春落難逢夫」를 읽은 이가 쓴 祖本을 근거하여 각각 三芳錄本과 金東旭本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⁶⁾ 그런데 例示한 文句의 添削에서 보듯이 첫째, 三芳錄本이 대체로 四言體 위주로 다듬어져 있고 둘째, 三芳錄本에서 蘭英의 이름이 蘭香으로 나온 것은 작자가 蘭香으로 改名하고자 하였으나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무의식 중에 본래 이름인 蘭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三芳錄本에서 買瓢子라 하였다가 뒤에 다시 賣瓢子로 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三芳錄本이 金東旭本보다 더 늦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金東旭本에 없는 滿庭芳詞 2闕이 三芳錄本에 실려 있는 점을 참고하면, 金東旭本의 또 다른 異本에 그 2闕이 실려 있었거나, 마찬가지로 三芳錄本의 또다른 異本의 존재도 假定해 볼 수 있다. 이 두 本의 祖本이 될 만한 작품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時點에서 先後問題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두 本의 서술방식, 文句의 一致등으로 보아 祖本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크게 바뀌어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Ⅲ. 「龍含玉」의 改作樣相

「龍含玉」은 1906년 2월 23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大韓日報>에 連載된 開化期 新聞소설이다. 작자는 金華山人이고 一日 연재분을 한 回로 하여 총 30回(이중 1,7,8회는 未詳)이며, 내용을 概略한 五言回目이 붙어 있다. 文體는 懸吐 漢文體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龍含玉」에 대해서는 主題나 構成, 敘述방식이 典

6) 沈慶昊 역시 이같은 推論을 하고 있다. 註3) 참고

型的인 舊小說로 勸善懲惡을 표방한 영웅소설⁷⁾, 李朝小說의 마지막 漢文體小說로서 文學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작품⁸⁾으로 평가되었으며 「玉堂春落難逢夫」와 주 플롯이 완전히 일치하는 翻案作⁹⁾이라는 說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회에서 19회까지는 「王慶龍傳」의 翻譯이고 20회 이후부터는 여주인공 玉檀의 立功부분이 10회에 걸쳐 첨가되어 있다. 그 梗概는 19회까지 「王慶龍傳」과 완전히 일치하며 登場人物의 이름, 時代, 地理背景도 동일하다. 19회에서 30회까지의 梗概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고향으로 돌아간 慶龍은 부모에게 謝罪하고 학문에 열중, 장원급제하여 毒殺事件을 맡은 直指御史가 되어 徐州에 이르고 거지로 변장, 밤에 옥단을 만나 일의 自初至終을 알아내어 獄事를 처리한다. 그후 王慶龍은 皇帝의 信任을 얻어 雲南境의 蠻軍討伐에 出征한다. 그는 玉檀의 劍術과 奇智로 敵을 이기는 大功을 세우고 이 戰功으로 兵部侍郎이 되고 華公主의 駙馬가 되며, 玉檀은 그 功을 인정받아 公主로 特封되는 동시에 亞室이 되어 龍과 偕老하게 되었다.

「龍舍玉」은 지금까지 알려진 後期 「王慶龍傳」系 소설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06년의 작품으로 三芳錄本系 「王慶龍傳」에 근거하여 씌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金東旭本에는 없고 三芳錄本에만 있는 滿庭芳詞 2闕이 「龍舍玉」에 삽입되어 있고, 둘째, 두 本의 「王慶龍傳」과 「龍舍玉」의 일부를 대조해 보면, 우선 玉檀이 殺夫의 疑惑을 받고 관가에 끌려가는 장면에서

里人拿此二人及巫夫, 并其奴僕, 比隣告於官...(金本)

隣人拿此三人及奴僕切隣等而告官...(三本)

里人이 拿此二人及奴僕切隣告之於官흔디...(龍)

慶龍이 歸鄉하여 玉檀의 생각을 끊고 학문에 몰두하는 대목에서

7) 韓元永, 앞의 책, p. 275

8) 宋敏鎬, 앞의 책, p. 92

9) 孫秉國, 앞의 論文, pp. 126-133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吾若成疾，殆將死矣。安得復見玉檀乎。乃揮刀而叱之曰...(金本)

吾若成疾，殆將死矣。安得復見玉檀乎。遂拔劔正心，端坐講讀，或眩見於目中，乃揮刀而叱之曰...(三本)

吾若成疾이면 殆將死矣라 安得復見乎리오 握劔定心하야 端坐讀書라가 見玉娘이 眩於目中하면 乃揮刀而叱之曰...(龍)

또한 慶龍이 殺夫事件을 해결하는 場面에서

乃屏列吏卒於門外，留罪人於庭下，御史入房點心，久而不出。罪人在庭，而知無人，遂相議曰...(金本)

乃屏列庭吏卒於門外而闔之，只留罪人於其庭，御史入房點心，久而不出。罪人輩在庭下知無人，遂相議曰...(三本)

乃屏吏卒與傍聽人民於門外而緊闔之하고 只留罪人輩於庭中하고, 御史는 上樓하야 垂帳而不出이어늘 諸罪人이 覘其空庭無人하고 論議曰...(龍)

위에서와 같이 金東旭本보다는 三芳錄本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이런 대목은 全篇에 걸쳐 고루 발견된다. 셋째, 옥단을 소개하는 노파에게 경룡이 주는 銀子が 金東旭本에는 十兩, 三芳錄本에는 二十兩인데 「龍舍玉」에서도 二十兩으로 나와 있고, 娼母에게 주는 銀자가 金東旭本에는 三百兩, 三芳錄本에는 三千兩인데 「龍舍玉」에서도 三千兩으로 나와 있다.

「龍舍玉」은 懸吐漢文小說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漢文體에 한글로 따만 달아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金東旭本보다는 三芳錄本에 접근되어 있다. 滿庭芳詞 2闕의 插入은 결정적으로 三芳錄本系 작품의 번안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몇몇 구절에서 오히려 金東旭本에 가깝게 쓰여진 곳도 발견된다. 慶龍이 다시 부자인 체하고 찾아오자, 창모는 다시 財物이 탐나 맞아들이는 대목에서

況玉檀矢死秉節，日夜號泣在北樓不下者，二年于茲矣。公子若詢於隣里，亦可立驗矣...(金本)

況玉檀矢死秉節，日夜在處北樓不下者，已三年矣。若詢於隣里，則亦可立驗矣...(三本)

爾況玉娘이 矢死秉節하야 日夜號泣하야 不下北樓者有二年矣라. 公子

〕 若詢於隣人○면 亦認其吾家之戀公子가 可謂○矣어늘...(龍)

라고 하여 金東旭本에서와 같이 玉檀이 北樓에서 二年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慶龍이 돌아간 후 父親의 問責을 당한 뒤 數月후에 다시 공부하겠느냐는 부친의 물음이 나오는데 三芳錄本에는 數日로, 金東旭本에는 數月로 나온다. 또한 「龍舍玉」에는 玉檀의 侍婢 이름이 始終 蘭英으로 나오는데 이는 金東旭本과 같다. 물론 이와 같은 사소한 차이가 原典探究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懸吐漢文體로 쓰여진 문장에서 他本과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은 그 原典探究에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三芳錄本과 金東旭本의 先後關係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우나 「龍舍玉」과 대조하면서 살펴보면 「王慶龍傳」은 三言중의 「玉堂春落難逢夫」에서 翻案된 후 開化期에 이르기까지 여러 筆寫本과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판본도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龍舍玉」이 三芳錄本系의 翻案이면서도 金東旭本과 유사한 귀절이 발견되고 있는 데서 가능하다. 이 세 本에서의 이 같은 관계는 뒤에 나온 「靑樓之烈女」에서도 발견되는데 時代順에 따라 後論하기로 한다.

「王慶龍傳」과 「龍舍玉」의 내용은 앞서 말한대로 뒷 10회만 제외하면 人物, 地理, 時間背景이 완전히 一致한다. 다만 사소한 곳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碧芙蓉」의 原典探究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 차이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慶龍이 玉檀을 만났을 때 권하는 술이 竹葉春인데 「王慶龍傳」에서는 그냥 一酌이라고만 되어 있고 酒名은 없다.
- ② 慶龍이 娼母집에서 玉檀을 對面하는 장면에서 陪席한 妓女 朝雲과 慶龍, 玉檀이 부르는 노래(詞) 4闕이 모두 빠져 있다.
- ③ 慶龍이 玉檀을 대면한 뒤의 心理描寫에서 “龍亦意馬心猿이 往來于玉娘身上이 러라”는 말이 있으나 「王慶龍傳」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 ④ 老僕이 酒色에 빠진 慶龍에게 돌아가자고 권하는 말에서 “公子아 有命不復이 罪一也오 不告而娶가 罪二也오 樂而忘返이 罪三也오 浪費重貨가 罪四也오 耽淫喪志가 罪五也니 老僕이 不敢與公子共之니 請今辭歸호노이다 ”이라 되어 있는데 「王慶龍傳」에는 다만 “郎君之事決矣。老僕請今辭歸”라고 하여 그런 말이 없다.
- ⑤ 慶龍이 도적떼에게 잡혔을 때 金環을 주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오나 「王慶龍傳」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목숨을 애걸하자 도적 중의 一人이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⑥ 玉檀이 慶龍의 生死를 노파를 통해 확인하고 보낸 편지를 景龍이 받는 장면에서 “一幅白雪絞綃에 嚼破指호야 以血書之라”라고 하여 血書란 말이 있는데 「王慶龍傳」에는 “龍觀其手跡, 掩泣開緘”이라고만 되어 있다.
- ⑦ 慶龍이 도적떼에게서 살아난 후 老翁의 도움으로 찾아가는 거지촌이 滄海村인데 「王慶龍傳」에는 宮里(金本), 閭閻(三本)이라고만 되어 있고 村名은 없다.
- ⑧ 慶龍이 부자인 체하고 다시 찾아오는 장면에서 동네사람들이 다시 부자가 된 것을 의아해 하자 대답하는 慶龍의 말이 “公等이 不聞李白詩乎아 千金散盡還復來라호니”라고 하는데 「王慶龍傳」에는 “公等不聞李白詩乎, 天生我才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라 되어 있다.
- ⑨ 玉檀과 慶龍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玉檀이 慶龍에게 돌아간 후 공부에 전념하여 “題名雁塔호고 得刺此州면” 만나게 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王慶龍傳」에는 다른 날 此州의 刺史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한다.
- ⑩ 歸鄉후 부친에게 猛打당함을 만류해 준 耆老 趙志樂이 閹老가 아끼는 사위라고만 되어 있는데 「王慶龍傳」에는 閹老가 아낄 뿐 아니라 慶龍과도 평소 잘 지내는 사이란 설명이 있다.
- 또한 玉檀이 趙妻와 巫夫를 私通케 하고 毒이 든 죽을 받는 과정에서 趙妻가 巫夫와 짜고 玉檀과 趙賈를 함께 살해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兩人이 恐玉이 告其夫호고 相與謀호야 欲殺玉娘호야 以滅其口어늘 舊妻曰玉雖殺之라도 老夫猶在면 心不自安이니 以殺玉之力으로 去其老夫

면 豈非長遠之計也리오 巫夫 |曰卜如并去之라하야 密謀既同에 趙賈 |
出宿於他리가翌朝而還이어늘...

라 하여 두 사람을 함께 毒殺하기로 했는데도 玉檀이 죽그릇을 바꾸어 놓아 趙賈
만 죽게 되는데 그 前後事情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 「王慶龍傳」에서는

兩人恐檀告其夫， 相與謀計， 欲滅其跡， 會其夫出宿于隣家， 翌朝而
返...

라고 하여 趙妻가 玉檀만 죽이려 했기 때문에 玉檀이 죽그릇을 바꾸어 살아나는
것은 理致에 맞다 하겠다.¹⁰⁾

그외 비교적 큰 차이는 壯元及第후 慶龍이 玉檀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다. 慶龍
은 徐州 殺夫사건의 의혹을 해결하라는 上의 命을 받고 直指御史가 되어 徐州에
이른다. 그 대목에서

明皇帝 | 特命王慶龍으로 爲徐州直指御史하시고 乃賜紫繡衣一領과 金
馬牌一套하시야 凡官吏之黜陟과 獄案之取決과 罪人之生殺을 并皆自斷하
라하시니 御史 | 受命謝恩하고 乃即日發行하야 行行至徐州境하야 採
訪人民之疾苦하며 探問官吏之行政하야 周歷數月에.....探其徐州疑獄
之未決하니 村老野翁이 歎歎然曰娼女玉檀이 苦守貞節이라가 誤落娼母
之奸計하야 留於趙賈之家하야 玉不受汚하며 蓮不染泥하야 執操愈堅하
고 強售媚笑하야 消磨歲月이러니...

사실상 暗行御史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王慶龍傳」에서는 이런 대목이 없고
殺夫사건을 맡은 御史가 되어 徐州에 이르고, 玉檀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억
울함을 전하여 慶龍은 罪人등을 따로 두게 하고 사람을 埋伏시켜 이야기를 엿듣
게 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그리고 玉檀과 함께 돌아가 부친이 이미 정
해 둔 正室과 함께 幸福을 누린다. 「龍舍玉」에서는 玉檀이 御史가 慶龍인지를 확
인하지 못하며, 慶龍은 「春香傳」에서의 李夢龍과 같이¹¹⁾ 거리를 다니며 實情을

10) 왜냐하면 함께 죽이기로 했다면 두 그릇에 다 毒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그릇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묻고 밤에 거지로 변장하여 玉檀을 찾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身分을 밝히지도 않는다. 事件解決의 手法은 同一하게 그려져 있으나, 「龍舍玉」에서는 暗行御史로서의 행동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발견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異本에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고 「龍舍玉」이 그 本을 보고 썼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龍舍玉」의 출간시기로 보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龍舍玉」의 작자가 고전소설중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春香傳」의 暗行御史 모티프를 첨가시켰을 것이다. 이는 남주인공 자신이 여주인공의 獄事를 해결하는 장면이 「春香傳」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셋째, 「春香傳」이 中國戲曲 「玉堂春」(「王慶龍傳」의 原典 「玉堂春落難逢夫」를 後代에 改編한 戲曲)과 흡사하다는 연구가 있는데¹²⁾ 어쩌면 玉堂春 故事중의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獄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春香傳」에 영향을 주었고, 「龍舍玉」의 原典인 「王慶龍傳」에는 없으나 다시 그후에 나온 異本에서 逆으로 「春香傳」의 내용을 모방하여 첨가시켰으며 「龍舍玉」은 그 本을 보거나 혹은 「龍舍玉」의 작자가 직접 「春香傳」의 장면을 첨가시켰을 것이다.

다음으로 慶龍이 獄事를 해결하고 난 뒤 같이 갇혔던 黃俊猊이란 者가 玉檀이 겪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娼母에게 있다 하여 벌을 주자는 장면이 있고 경릉이 그 말을 옳게 여겨 娼母를 종신징역에, 商嫗를 笞一百에 處하는데 「王慶龍傳」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외 「龍舍玉」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20회이후 첨가되어 있는 옥단의 立功부분이다. 玉檀이 慶龍을 떠나 보내고 지내는 동안 劍術과 變身術을 익혀 南蠻과의 決戰에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고 公主로 封해지며 경릉과 결합하게 된다. 玉檀의 입공부분 첨가로 女流型 軍談小說로 變形되었다는 說¹³⁾이

11) 宋敏鎬 역시 玉檀이 匿名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을 王慶龍이 御史가 되어 구해주는 장면이 「春香傳」과 같은 구성이며, 작자가 필경 「春香傳」을 假借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 丁來東, “春香傳에 영향을 미친 中國作品들”, 成大大東文化研究제1집, 1963, pp. 189-207

13) 韓元永도 「龍舍玉」을 영웅소설로 보았고(註7 참고), 孫秉國도 앞의 論文(p. 132)에서 女流型 軍談小說이라 하였다.

있으나 그 성격으로 보아 전체 내용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같은 軍談話素의 介入은 첫째, 「王慶龍傳」과 「龍舍玉」 出刊의 시기적 간격으로 보아 兩亂이후 유행한 군담소설의 영향을 받은 異本이 있어 그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작자가 직접 軍談話素를 개입시켜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愛情소설에서 軍談소설로의 전환문제이다. 軍談小説은 戰爭을 통하여 英雄이 활약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로 지금까지 연구된 軍談小説의 定型은 ㉞ 祈子精誠→㉟ 胎夢→㊱ 主人公의 試鍊→㊲ 國家의 危機→㊳ 主人公의 立功→㊴ 政敵의 復讐→㊵ 富貴榮華로 圖示化된다.¹⁴⁾ 그러나 「龍舍玉」에서는 ㉟ 主人公의 試鍊이 愛情과 관련된 것이며 자신의 智慧로써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㊲ ㊳는 사실상 부수된 부귀영화의 조건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즉 「龍舍玉」의 中心主題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며 軍談話素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또한 주인공의 試鍊時 修練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超越的 主宰者의 도움도 없으며 立功에 따른 부귀영화도 이미 시련을 겪고 이루어낸 사랑의 승리에 부수되는 것이 지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開化期에 印出, 發刊된 古小説 가운데 軍談小説이 많은 量을 차지하고¹⁵⁾ 있고 같은 新聞에 연재된 「一捻紅」 역시 英雄小説의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¹⁶⁾ 開化期小説 가운데 古典小説의 여러 話素가 고루 들어가 있는 작품이 多數 있어 「龍舍玉」 역시 이런 文壇의 분위기에 便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그 末尾에 記者의 評語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至於王郎玉娘事호야는亦可以懲近世鄭衛之風焉이라 何者호 男子는沈溺於色界而喪心失志호야 流迭而不返者 | 有之호며 至於娼妓之狐媚 蠱毒은 尙矣勿論호고 所謂別室妾婦之近世行爲가 有朝逢而夕散者호고 東響而西應者호야 百般醜態와 萬般淫情을 有不可以人類로 稱焉者라. 此是人世風化之大關係而尤切於近日之最大惡俗 故로 揭此龍舍玉二十回小説호야 以爲創善懲惡之一大寶箴云爾호 且續載稗官호야 供

14)徐大錫, 「「劉忠烈傳」의 綜合的 고찰」, 韓國古典小説研究, 새문사, 1983, p. 337

15)金重河, 「開化小説의 文學社會學的研究」(慶北大 博士論文 1985, p. 51)

16)註15)의 論文 pp. 89-91 참고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愛讀者耽玩焉호노라

결국 「龍舍玉」은 당시 娼女の 狐媚蠱毒과 別室妾婦하는 世態를 징계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며 三芳錄本系 「王慶龍傳」을 藍本으로 하고 「春香傳」 및 당시 유행했던 女流型 軍談小説의 話素를 개입시켜 原典과 다르게 改作한 것이다.

IV. 「碧芙蓉」의 改作樣相

「碧芙蓉」은 1912年 匯東書館에서 紹雲 著述로 發行한 舊活字本小説로 표지에 “신소설”이라 적혀 있다. 모두 72면이며 漢詩와 成語아래 諷刺하여 漢字를 쓴 것 외에는 純한글로 되어 있다. 「碧芙蓉」은 그동안 나온 新小説 관계 자료집에도 실려 있지 않으며 1987년에 나온 啓明文化社 발행의 新小説集 卷5에 실림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¹⁷⁾ 「碧芙蓉」에 대한 연구는 孫秉國의 논문에서 먼저 언급되었는데 그는 이 작품을 <警世通言>卷24 「玉堂春落難逢夫」와 비교하여 主플롯이 一致하는 완전한 翻案作品이나 副플롯의 添加나 人物類型上에 있어 變形을 보이고 있어 韓國古典小説 속에서 보이는 愛情小説의 典型的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¹⁸⁾ 그러나 같은 내용의 古典小説인 「王慶龍傳」과 「龍舍玉」의 存在를 완전 무시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직접 中國小説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開化期에 나온 古典小説 形態의 新小説, 新聞小説등이 다수 그 작자가 분명치 않으며 高麗소설 혹은 中國소설 등에서 翻案된 형태가 발견되고 있는 점¹⁹⁾ 으로 보아 이 시기에 나온 소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당연히 前代小説 내지는 前期小説과의 연관성 탐구가 그 고찰의 한 方面이 되어야 할 것이다.

「碧芙蓉」의 내용은 「王慶龍傳」系 他小説과 一致하며 주인공의 이름과 官職, 地

17) 孫秉國, 앞의 論文, p.175 註70에서 再引用

18) 孫秉國, 앞의 論文, pp.175-185

19) 曾天富, 앞의 論文, pp.67-72 참고. 1909年 大韓每日申報에 連載된 「報應」 역시 <警世通言>卷5, <今古奇觀>卷31에 수록되어 있는 「呂大郎還金完骨肉」의 翻案작인데 그 序頭樣式이 新小説의 그것과 같다.

名 등만 달리 나타나고 있다.

王慶龍傳系 他小說 ²⁰⁾	碧芙蓉	役 割
王慶龍	박원철	男主人公
玉檀	부용	女主人公
魏國公	박참판	男主人公의 아버지
老僕	김만보	男主人公의 종
朝雲	단계	男主人公이 처음에 보고 부르고자 한 기생
老嫗	주점노파	男主人公과 女主人公을 만나게 해 주는 사 람
娼母(抱主)	孫二娘	女主人公을 길러준 기생집 주인
盜賊떼	盜賊떼	갈대숲에서 男主人公의 財物과 옷을 빼앗 음
老翁	어옹	갈대숲에서 男主人公을 구해주는 사람
韓鷗	한의대	男主人公이 걸식할 때 一時 그를 도와주는 사람
蘭英	춘섬	女主人公의 侍婢
商嫗	王婆	娼母와 미리 짜고 내쫓긴 女主人公을 보살피 주는 척 하는 노파
趙賈	조응성	抱主와 짜고 女主人公을 납치해 감. 결국 本 妻의 소행으로 죽고 만다
趙賈의 妻	오씨	남편을 죽이고 그 혐의를 女主人公에게 뒤집

20) 「王慶龍傳」系 소설중 「靑樓之烈女」에서 人名이 조금 다르게 나오나 「王慶龍傳」과 「龍舍玉」은 일치하므로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巫 夫 縣 官 趙志樂	巫 夫 관장(官長) 지락(志樂)	어 씩음 趙妻의 셋서방 처음 살인사건을 맡은 관리 男主人公의 姊兄으로 男主人公이 故郷에 돌아 아갔을 때 그 부친에게 猛打당함을 만류해 줌
奴僕들	노복	趙妻의 하인으로 女主人公이 재판 받을 때 官 庭에서 사실을 토로하는 사람들
主簿, 家丁	吏部, 御史 의 종	장롱속에서 사실을 엿듣는 사람들

圖示한 대로 人名만 다르지 그 역할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王慶龍傳」系 소설 가운데 「碧芙蓉」보다 몇년 앞서 나온 「龍舍玉」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씌여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王慶龍傳」과 「龍舍玉」의 차이점이 「碧芙蓉」에서는 「龍舍玉」과 일치한다.²¹⁾

- ①-1 원철이 부용을 만났을 때 권하는 술이 竹葉春이라 되어 있어 「龍舍玉」과 일치하는데 「王慶龍傳」에는 이런 말이 없다.
- ②-1 원철이 孫二娘집에서 부용을 대면할 때 陪席한 기녀 단계와 원철, 부용의 노래가 없는데 이는 「龍舍玉」과 일치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碧芙蓉」에는 원철이 귀향하여 부친의 시험을 받아 짓는 詩 1首만이 있을 뿐 다른 15首의 韻文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다.
- ③-1 원철이 부용을 대면하는 장면의 심리묘사에서 “원철의 의마심원(意馬心猿)이 부용의 몸에 왕토틀을 흐더니”라 되어 있는데 「龍舍玉」에도 같은 말이 그대로 나온다.
- ④-1 노복이 주색에 빠진 원철에게 돌아가자고 권하는 말에서 “서방님이 덕령감이 보너신걸 즉시 회보를 아니허미 죄가 한아요, 부모께 고치 아니허고

21) 앞의 「龍舍玉」의 改作樣相을 참고

취실함미 죄가 돌이요, 마음을 질게 도라가지 아니함미 죄가 셋이요, 마는 은을 허비함미 죄가 너히요, 음난흔걸 탐하여 쫓을 상함미 죄가 다섯이라 나는 서방님으로 갖치 잊지 못함리니 도라가릿소”라 하여 「龍舍玉」에서 노복이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 ⑤-1 원철이 도적떼에게 잡혔을 때 재물을 주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龍舍玉」에서도 경룡이 금환을 주고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⑥-1 부용이 원철의 生死를 노파를 통해 확인하고 보낸 편지를 받는 장면에서 “힌 비단에다 손씻출 씨물어 피로 씻스되”라고 하여 血書임을 알려 주는데 이는 「龍舍玉」과 같다.
- ⑦-1 원철이 도적떼에게서 살아난 후 찾아가는 거지촌이 “창희촌”으로 「龍舍玉」과 같다.
- ⑧-1 원철이 부자인 체 하고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 원철의 말이 “공등이 리빅의 시를 듯지 못함앗는야 천금산진환부릭(千金散盡還復來)함니 무엇이 고이함리오”하여, 「王慶龍傳」에서 두 句가 다 나오는 데 비해 「龍舍玉」에서 앞 句가 삭제된 것이 여기서도 같게 나온다.
- ⑨-1 원철과 부용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부용이 하는 말이 「龍舍玉」과 같다. 즉 “근친흔 후 공부를 함여 안탐에 제명함고 이 고을에 관장이 되면...”하는 것이 「王慶龍傳」과는 다르고 「龍舍玉」과 같다.
- ⑩-1 귀향 후 부친에게 맹타당함을 만류해 준 제부 志樂이 참판이 아끼는 인물로만 되어 있는데 역시 「龍舍玉」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壯元及第 후 御史가 된 원철이 부용을 구하는 장면이 「龍舍玉」과 같으며 더구나 직접 暗行御史로 되어 있고 御史出道 장면이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春香傳」의 장면과 방불하다.

그날 발글씨 별안간에 숨문을 두다리며 벽력갓튼 소리가 나되 “암힘어스 출도야 암힘어스 출도야 육방관속이 창황분주함여 물슬똥함여 역줄은 마피와 치죽으로 보논티로 두다리며 리방싱리야 공방싱리야 남요를 등딤함여라 포진들 디령함여라...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그리고 그전에 거지로 변장하여 獄에 있는 부용을 찾아간다든지, 사건해결 후 같이 갇혔던 者중에 황티담이란 자가 부용의 수난이 창모와 왕파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고 원철은 孫二娘을 종신징역에, 왕파는 톱일릭에 處하는데 역시 「龍舍玉」에만 있는 내용이다.

이상으로 「碧芙蓉」이 「王慶龍傳」系 소설 중 「龍舍玉」에서 翻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碧芙蓉」에서 「龍舍玉」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면 우선, 男主人公이 부친의 命을 받아 빌려준 銀子를 받는 장면에서 「龍舍玉」에서는 부친이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면서 慶龍에게 老僕과 남아 있다가 받아 오라고 되어 있는데, 「碧芙蓉」에서는 이미 내려온 부친이 아들 원철로 하여금 노복을 데리고 義州로 가서 銀子를 받아오게 한다. 그리고 時間背景은 정확히 明示되지 않았고 地理背景은 朝鮮으로 바뀌어져 있다. 또한 원철이 창모집에서 재산을 허비하는 데 불과 몇달이 걸리는데 「龍舍玉」에서는 5,6년이 경과했다고 되어 있고,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이가 「龍舍玉」에서는 부친의 옛 胥吏였으나 「碧芙蓉」에서는 원철과 아무 緣故가 없고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철이 처음 부용을 만났을 때 碧芙蓉 한 가지를 들고 있는 이가 「龍舍玉」에서는 玉檀과 같이 있는 기생 朝雲인데, 여기서는 같은 처지의 기생 단계가 아니라 부용 자신이다. 이는 女主人公의 이름을 부용이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 意圖的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龍舍玉」의 北樓 역시 芙蓉亭으로 나오는데 같은 이유에서 바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부용이 오씨의 不貞을 알고 毒 든 죽을 받으나 살아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龍舍玉」에서와 같이 부용과 조가를 모두 죽이기로 하여 죽그릇을 바꾸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살아나게 되는 경위에서 「龍舍玉」은 같이 죽이기로 謀害해 놓고도(독을 두 그릇에 다 넣었어야 함) 죽그릇을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 「碧芙蓉」의 작자가 그 先後事情이 맞지 않아서 原典의 矛盾을 고쳤을 것이다. 그 외 「碧芙蓉」에서는 「龍舍玉」에 나오는 女主人公의 立功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는 작자가 不必要하다고 여겨서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作品末尾의 書評에서 「龍舍玉」의 跋文을 번역한 作者紹介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듯이 작자는 당시의 別室妾婦하는 惡習을 징계하려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 썼으며 때문에 「龍舍玉」에서처럼 玉檀이

공주로 봉해지기는 하나 亞室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地理背景 역시 朝鮮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南蠻의 侵入으로 인해 設定되는 女主人公의 立功部分을 삭제하고 元철의 壯元及第와 사랑의 성취 등을 大團圓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또 부용이 임금의 허락으로 正室이 되는데 「龍舍玉」에서는 玉檀이 立功으로 공주로 봉해지나 亞室이 되는 것에 그치고 그 正室은 皇帝의 딸이 된다. 결국 작품말미의 蓄妾批判 云云하는 作者介入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에 비해 「碧芙蓉」은 始終 蓄妾批判등 社會風俗 敎化에 중점을 둔 新小說의 主題에 接近되어 있다.²²⁾

그 외 「碧芙蓉」에서 드러나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序頭의 描寫樣式이다. 그 표제에 新小說이라 明記하고 있는데 서두부분의 描寫가 新小說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구시월 단풍은 송임시에 불긋불긋하고 소슬흔 바람은 갈입피 우수수
 흐며 가는 싸치는 싹싹하고 오는 기러기는 웅웅하니 석양이 동선령
 서편에 너머가리 어둠침침하고 적적무인헌데 한소년이 나귀를 주견하
 고 충충망망히 오면서 무엇을 찾는 모양 갖더니...

開化期小說의 대부분이 古典小說과는 달리 場面 提示型의 序頭樣式을 채용하고 있고²³⁾ 특히 이 시기에 나온 중국소설의 翻案作 중에서도 신소설의 序頭樣式을 따르고 있는 예도 있다.²⁴⁾ 그리고 「碧芙蓉」은 주로 對話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어 「龍舍玉」의 표현양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문’ ‘징역’ ‘계약서’ 등 당시에 쓰인 단어들 다수 발견된다. 즉 「벽부용」은 「龍舍玉」에서 立功부분만을 탈락시키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한글로 옮기되 人名, 地名 등을 한국어로 바꾸고 敘述方式도 新小說의 양식으로 바꾸어 翻案한 作品이다.

22) 新小說의 主題는 주로 風俗改良의 開化思想과 敎化的인 鑑戒主義로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洪一植의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悅話堂, 1980) p. 208 참고

23) 尹明求, 開化期小說의 이해, 仁荷大學校 출판부, 1986, p. 73

24) 註19)와 同一

V. 「靑樓之烈女」의 改作樣相

「靑樓之烈女」는 1917년 新舊書林에서 著者名을 朴健會로 하여 발행한 舊活字本 소설이다. 모두 112面이며 5回로 나누어져 있다. 첫면에 “古代小說 靑樓之烈女目錄”이라 쓰고 그 아래 그 回의 내용을 간추린 回目이 같은 漢字對句와 한글풀이로 나와 있는데 각 回目이 같은 字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文體는 純한글이나 漢字語가 그대로 쓰이고 있고, 오른 편에 그에 해당하는 漢字를 並記하고 있다. 그 敘事構造는 완전히 古典小說의 樣式을 답습하고 있으며, 「王慶龍傳」을 國文小說化한 翻譯物로 알려져 있다.²⁵⁾ 그 내용은 「王慶龍傳」과 같고 人名, 地名, 時間背景도 同一하다. 다만 玉檀이 쫓겨날 때 娼母와 미리 짜고 해치는 이가 「王慶龍傳」에서는 商家寡婦인데 「靑樓之烈女」에서는 高寡婦이고, 玉檀을 사가는 巨商의 이름이 趙賈에서 趙哥 혹은 趙生으로 나오며 慶龍의 正室이 某氏女에서 祁氏로 되어 있음이 다를 뿐이다.

「靑樓之烈女」의 原典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나온 네 본과 비교해 보면 「靑樓之烈女」는 「龍舍玉」, 「碧芙蓉」보다는 「王慶龍傳」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三芳錄本系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登場人物과 時間, 地理背景이 「王慶龍傳」, 「龍舍玉」과 같으나 「벽부용」과는 다르며, 다음으로 세세한 부분에서 「龍舍玉」보다는 「王慶龍傳」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살핀 바 「龍舍玉」에서 「王慶龍傳」과 다르게 쓰인 부분이 「靑樓之烈女」에서는 「王慶龍傳」과 일치하고 있다.

- ①-2 경룡이 옥단을 만났을 때 권하는 술이 그냥 한觥이라고만 되어 있고 酒名은 없다.
- ②-2 경룡이 娼母집에서 옥단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에서 朝雲과 慶龍, 玉檀이 부르는 노래 4闕중 옥단의 暮雨曲에 대한 答歌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삽입되어 있다.
- ③-2 옥단을 대면한 뒤 경룡의 심리묘사에서 意馬心猿 云云하는 말이 없다.
- ④-2 老僕이 酒色에 빠진 경룡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말에서 「王慶龍傳」에서와 같이 “쥬랑에 일은 임의 결단헌신 바이 잇슴이니 마음되로 흐소서. 노복은

25) 金東旭, 黃涓江共著, 古典小說入門(서울, 開文社, 1985) p. 245

일노 조차 하직을 고희노라”라고만 되어 있다.

- ⑤-2 경룡이 도적떼에게 잡혔을 때, 금환이나 재물을 주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애걸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⑥-2 玉檀이 노파를 통해 경룡의 生死를 확인하고 보낸 편지를 경룡이 받는 장면에서 “왕싱이 바다 그 슈적을 보미 가슴이 무어지듯 혼지라”라고 하여 「王慶龍傳」과 일치한다.
- ⑦-2 경룡이 도적떼에게서 살아난 후 찾아가는 거지촌이 창해촌이란 말이 없고 ‘혼 촌락’으로만 되어 있다.
- ⑧-2 경룡이 부자인 체 다시 찾아오는 장면에서 동네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공둥이 리빅의 시를 듯지 못흐얏노노. 하늘이 나의 직도를 니시미 반다시 쓸곳이 잇고 천금을 훗터다흐미 다시 도라온다흐얏는지라”하여 李白의 詩중 앞뒤 句가 다 나와 있다.
- ⑨-2 옥단과 경룡이 헤어질 때 옥단이 慶龍에게 하는 말에서 “공직 귀근흐신후 공부를 전력흐사 일즉 등과흐야 이골 주사를 흐신틈”이라 하여 雁塔에 題名이란 말이 없다.
- ⑩-2 귀향 후 부친에게 맹타당함을 만류해 준 趙志樂이 閣老가 아낄 뿐 아니라 경룡과 친히 지내던 사이란 말이 나와 있다.

또한 옥단을 구하러 간 경룡의 행동이 「王慶龍傳」과 일치한다. 거지로 변장하여 옥단을 찾아가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옥단의 實情을 묻는 장면이 없고 창모와 商嫗를 벌 주지도 않는다. 즉 「龍舍玉」에서 바뀌진 부분이 「靑樓之烈女」에 와서 다시 그 原典 「王慶龍傳」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靑樓之烈女」가 「王慶龍傳」에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靑樓之烈女」에는 金東旭本에는 없고 三芳錄本에만 있는 滿庭芳詞 2闕이 나와 있고, 옥단을 소개하는 노파에게 주는 銀子 액수가 二十兩으로 되어 있으며(金本에는 十兩, 三本에는 二十兩)경룡이 옥단의 집으로 찾아가 술자리를 같이 할 때 부르는 옥단의 노래가 내용은 같으나 그 曲名이 暮雨曲으로 되어 있는데, 三芳錄本에도 暮雨曲이나 金東旭本에는 暮雲曲으로 나온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주인공 侍婢名이 始終 蘭英으로 나오는데 三芳錄本에서 蘭香으로 나오다가 蘭英으로 바뀐 것과 비교하면, 작자가 의식적으로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蘭英으로 처음부터 바뀌서 썼든가 아니면 「龍舍玉」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蘭英으로 되어 있는 三芳錄本系 「王慶龍傳」의 異本을 보고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景龍이 처음 娼母에게 주는 銀子가 金東旭本에는 三百兩, 三芳錄本에는 三千兩인데 「靑樓之烈女」에는 三百兩, 「龍舍玉」에서는 다시 三千兩으로 나오는 등 出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詩, 詞의 對照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全篇에 있는 16편의 韻文을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金東旭本「王慶龍傳」	14	(10首詩+4闕詞)
三芳錄本「王慶龍傳」	16	(10首詩+6闕詞)
龍舍玉	15 ²⁶⁾	(13首詩+2闕詞)
靑樓之烈女	14	(9首詩+5闕詞)

우선 詞인 경우 「王慶龍傳」二本과 「龍舍玉」에는 漢字 그대로, 「靑樓之烈女」에서는 한글풀이로 나와 있는데 뜻이 같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詩인 경우 五本 모두 漢字 그대로 쓰여져 있으나 글자의 出入이 다소 나타난다. 그중 二首만 가려보면,

		①	②	③	④
北樓春日又黃昏	<金本>	拭	濕	鵲	亂
①盡紅巾②淚痕	<三本>	濕	拭	鵲	亂
回首蘆林鳥③④	<龍>	濕	洗	啼	散
不知何處可招魂	<靑>	濕	拭	龍	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b	c
舊①登②日③昏	<金本>	客	高	已	點	拭	啼	何	許	悵	悵	應	存	未
④燈相對⑤⑥痕	<三本>	客	樓	已	點	拭	啼	何	許	悵	悵	應	存	未
蘆林風雨令⑦⑧	<龍>	客	堂	又	紅	拭	淚	如	夢	萬	樹	春	花	已
⑨⑩a) b) c)返魂	<靑>	客	臺	已	點	見	啼	何	許	悵	悵	應	存	未

대체로 「龍舍玉」에서 가장 큰 變改를 보이고 있는데 20回 이후에도 詩 5首가 더 나오는 등 차이가 많고, 다른 本은 글자가 서로 엇갈린다. 「靑樓之烈女」에 삼

26)20回이후 玉檀의 立功부분에 5首의 詩가 더 실려 있다.

입되어 있는 韻文도 原典인 「王慶龍傳」과 차이를 보이거나 그다지 큰 폭은 아니다. 그보다 「靑樓之烈女」에서 보여주는 보다 뚜렷한 改作樣相은 군데군데 자세히 前面의 내용을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걸인이 되어 다니던 중 瓢子파는 노파를 만나 韓鷗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고, 노파도 韓信의 故事까지 곁들여 景龍을 도와주려 한다.

노귀 이말을 듣고 추경추희왕 공주가 고초 격그신 이후로 의식도 간 구하시거든 어느 겨울에 모으신 직물이 잇스릿가 이는 로신의 드리는 바 은량을 밋지 안코져 일 막으심이라. 넷날 韓信이도 곤궁홀씨에는 미양 이갓치 허거든 허물며 로신이 전일 공주의게 후은을 입었는지라 공주에 곤욕당하심을 보고 거연히 잇스릿가 두번도 말슴말고 바드소서. 공직 실정으로 말하야 월...

이 부분이 「王慶龍傳」에는

嫗曰...又以數兩銀子與龍曰,願公子以此姑備留待之資,龍亦有資可支...

라고만 되어 있다. 이런 例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景龍이 고향에 돌아와 모친을 뵈고 그간의 사정을 날날이 告하는 장면이 「王慶龍傳」에는 다만 “由龍對之以實具陳玉檀之事...”라고만 되어 있다. 그리고 娼母가 玉檀에 끌려 徐州 衙門에서 訟事당할 뻔한 장면에서도 釐母의 생각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역시 「王慶龍傳」에는 없는 것이고 5回중 제3回的 導入부분에서 2회까지의 내용을 중복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巫夫와 趙妻의 私通장면에서도 본래 이들이 뜻이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던 중 옥단이 필적을 僞造하여 편지를 보내 成事시키는데, 「王慶龍傳」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趙妻와 巫夫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巫夫가 자주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필적을 僞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王慶龍傳」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成就한 옥단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瓢子파는 노파를 불러 은혜에 보답하는 내용이 있으며, 자신의 侍婢인 蘭英을 王慶龍의 셋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하고 慶龍과 玉檀의 結合 후에 일어나는 家庭小事와 子孫들의 登科過程등 末尾가 장황하게 그려져 있다.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靑樓之烈女」의 作者는 宗彥무진 세세하게 독자들에게 사건의 顛末을 報告하고 있으며 그 末尾에도 다음과 같은 作者介入이 나온다.

티더 화류계는 분면성장으로 의문미소하며 교언령식으로 송구영신하야 금은지보를 썩앗기로 농수를 삼거늘 더 옥단은 혈혈단신으로 도로에 핑결타가 창루에서 장성하야 보고 듯는 바 이이에 지남이 업것만은 위인이 출듀하고 지기가 탁월하야 미양 하간(河間)에 음형을 중오하고 여분(汝墳)의 정도를 스모하야 왕칭을 상봉하든 놀에 종신불기하는 허락을 바드며 이 스슈절하는 밍셔를 덩흔 후 동거 오락지에 성친근업함을 권간하야 립신양명케 하얏스며 창모에 비상흔 학퇴와 조가에 협박을 당하되 마춤니 절형을 보전하며 도라와 인륜을 바르게 하며 영화부귀를 누리엿스니 창루숙원이오 너중렬협이라 엇지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그 지닌 바 스적이 티락 이러하기로 기록하노라.

그 초점이 여인의 貞節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龍舍玉」이나 「벽부용」에서 蓄妾제도 批判과 勸善懲惡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다. 즉 「靑樓之烈女」는 三芳錄本을 그 原典으로 하여 한글로 번역한 作品이며 그 改作樣相은 原作에 없는 내용을 첨가시켜 가면서까지 작품의 내용을 再三 강조 혹은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 '고대소설'이라 明記한 것을 보아도 그 原典이 되는 고대소설의 存在를 假定해 볼 수 있다.

VI. 結 論

본 論文은 中國小說인 <警世通言>卷24 「玉堂春落難逢夫」의 翻案作인 朝鮮時代 筆寫本 漢文小說 「王慶龍傳」과 開化期에 나온 같은 내용의 「龍舍玉」, 「벽부용」, 「靑樓之烈女」間의 影響關係 검토를 주로 比較文學的 研究方法으로 고찰하였다. 本論에서 밝혀진 各本의 相互 影響 授受관계와 各本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큰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점의 원인을 요약하면 아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中國擬話本小說集 <警世通言>卷24 「玉堂春落難逢夫」의 翻案作인 漢文小說 「王慶龍傳」은 현재 金東旭本과 三芳錄本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본을 비교해 보

면 滿庭芳詞 2闕과 文句의 脫誤부분이 서로 겹치는 등 相異點이 발견된다. 때문에 두 本의 先後問題는 먼저 「玉堂春落難逢夫」를 보고 쓴 祖本의 존재와 이 두 本이 祖本을 근거로 각각 筆寫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 보이는 文句間의 合理的 必然性을 따져 볼 때 金東旭本이 다소 앞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開化期 新聞小說 「龍舍玉」은 三芳錄本系 「王慶龍傳」을 藍本으로 하여 번안한 것이며 10회에 걸쳐 여주인공 玉檀의 立功부분을 서술하고는 있으나 愛情小說의 典型的 특징을 지니고 있다.

滿庭芳詞 2闕의 存在로 三芳錄本系의 번안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부분부분 多少 金東旭本과 一致하는 부분도 있어 「龍舍玉」 이전의 三芳錄本系 異本이 있었음을 假定해 볼 수 있다.

「王慶龍傳」과의 가장 큰 차이는 玉檀의 立功部分과 男主人公 慶龍이 暗行御史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開化期에 發行된 古小說 가운데 軍談小說이 많은 量을 차지하며 古典小說 중의 여러 話素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작품이 다수 있는데 이는 소설의 發展過程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龍舍玉」은 新聞小說로 그 末尾에 娼女의 惡行과 蓄妾하는 世態를 懲戒하기 위해 쓴 것이라 하였으나 그 결말에 남주인공 慶龍이 妻妾을 거느리고 富貴榮華를 누리게 描寫되고 있어 主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벽부용」은 「龍舍玉」을 藍本으로 改寫한 것이며 이는 「王慶龍傳」과 「龍舍玉」의 차이점이 「벽부용」에서 「龍舍玉」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옥단의 입공부분은 생략되어 있으며 新小說의 序頭樣式을 차용하였고 서술방식도 新소설의 특징인 場面提示, 對話體가 많아 新소설로서의 탈바꿈을 試圖하고 있다.

넷째, 1917년 발표된 「靑樓之烈女」는 「王慶龍傳」을 原典으로 번역한 國文小說이다. 「王慶龍傳」과 「龍舍玉」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靑樓之烈女」에서는 「王慶龍傳」과 同一하게 그려지고 있다. 또한 滿庭芳詞 2闕의 插入을 근거로 「王慶龍傳」중에서도 三芳錄本系를 보고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改作樣相은 後半部 경릉의 婚事와 원본에 없는 婚事 이후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그려져 있고 이야기를

「王慶龍傳」의 後代的 變貌樣相

반복, 설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中心主題도 玉檀의 貞節을 강조하는 데로 집중되어 있으며 發刊 당시인 開化期 時代意識이 전혀 介入되지 않은 純粹 古典小說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靑樓之烈女」가 「王慶龍傳」의 완전한 翻譯作임을 확인케 한다.

다섯째, 이들 「王慶龍傳」系 小說 間의 比較를 통해 얻은 相互間의 影響授受關係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